

지역 매 아 리

고창군, 안전 먹거리 구축 식품안전검사 알리미 운영

고창군이 식중독 제로화 등 안전한 먹거리 구축을 위한 식품제조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발 벗고 나선다. 지난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관내 식품제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검사 알리미 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관내 식품제조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342개소에 대해 1월부터 생산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주기(식품 유형별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1~6개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9개월)를 사전에 알려줘 식품안전검사 미 이행에 따른 업소의 행정처분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안전검사 사전안내로 업소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안전한 식품제조·유통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식중독 발생이 높은 횡집, 김밥,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식중독지수를 사전에 알려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로바이러스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수 사용업소의 검사주기, 업소에서 필요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안전 관리 매뉴얼도 제작 배부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의료기관, 설 명절 연휴기간 비상 진료체계 가동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약국과 협력한 비상진료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2019년 설 명절 비상진료대책에는 정읍시 보건기관 42개소와 응급의료기관 11개, 아산병원 등 123개 의료기관, 약국 53개소를 포함한 218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정읍아산병원은 설 연휴기간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보건기관 42개소와 의료기관 123개소는 일차별로 지정된 근무일에 비상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 구입을 위한 휴일지킴이약국 53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시민들에게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안내하고 운영여부를 지도·점검하는 등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상식과 형평에 맞는 판단 기대”

고창 - 부안 해상경계 권한쟁의 공개변론 열려 고창군 각종 증거자료 제출하며 상대측 주장 ‘반박’

고창군이 해상경계분쟁 공개변론에 참석해 고창군민들의 삶의 터전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재천명하고, 상식이 통하는 법 판단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등은 전날(24일) 서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고창-부안 해상경계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참석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2016년 고창군이 구시포 앞바다에 대해, 지난해 부안군이 곰소만 갯벌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양측 법률대리인의 모두변론과 증인신문, 마무리 변

론 순으로 3시간 넘게 치열하게 진행됐다. 고창군은 구시포 앞바다(정송해역1)와 관련, 공유수면 경계가 불분명상 인정되지 않아 '섬'이 아닌 '육지' 관할 구역의 등거리중간선, 주소지 존재, 사무처리 편의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해상풍력실증단지인 고창 구시포항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설치되고 있으며, 해저전력케이블, 현장사무소 모두 고창군 육지에 있다. 여기에 상대측 주장에 따라 경우 고창군 앞 바다는 영해로 뻗어 나가지 못한 채 갯벌 바다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고, 해상풍력단지에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곰소만 갯벌(정송해역2)과 관련된 선, 고창군은 수십년 전부터 배타적

지배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고창어민의 생활터전(전국 생산량의 40% 바지락 생산), 갯벌축제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고창군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가 그려진 지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촘촘한 어장연라도, 해양수산부 고시자료(갯벌습지 보호지역에 고창쪽 갯벌만 등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측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 육지와 연결된 고창갯벌을 인위적으로 갈라서 행정구역에 다르게 하는 일은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다"며 "구시포 앞바다 역시, 서로의 육지 관할 구역이 나란히 존재하는 경우 각자의 앞 바다를 서로가 각자 관할하도록 동서 방향의 이등분선으로 해상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총력

정읍시, 상수관로 신설과 노후관 교체로 유수율 제고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통해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상수도시설 확충과 노후 상수관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77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상수도 미보급지역 17개소 14.3km구간의 상수관로 매설사업에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칠보면 청광·만적지역 7.0km, 산외면 당록지역 1.2km, 북면 원마정지역 1.1km, 산외면 여유치지역 0.8km 등에 상수관로 매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수성동 일원 등 노후 상수관로 개선사업 15km에 16억원, 초산지구 현대아파트, 유장아파트 주변 주택가 수압개선사업 0.6km에 3억원, 소규모 급수시설 보급지역인 산내면 종성마을 등 5개 마을 노후 상수관로 개량사업 15km에 12억원, 지방상수도 배수지 유지관리사업에 8억5천만원, 급수 취유구간 시설개선 1억원, 노후수도미터 교체 5억원, 소규모 관로정비 등 지방상수도 각종 시설물 개선에 5억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에 유수율 제고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총 47억원을 투입했다. 주요사업

으로 산외면 상두·지금마을 등 7개 지역 상수도 급수관 매설 11km, 정읍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1식, 상수 동결구간 시설개선 57개소, 도로단차구간 개선 57개소, 산내면 종성마을 노후 마을상수관로 개선 10km, 산내면 백필마을 등 5개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보수 및 보강 1식, 하진경 및 선운지구 노후 급·배수관로 교체 2.9km, 계량기 이설 등 급수환경 개선 1식, 지방상수도 누수 탐사용역, 그리고 소규모 긴급복구(누수복구 등)공사 등을 시행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생활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읍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를 보급하고 노후관을 조속히 교체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부안읍 수생정원 조성사업 추진 박차

부안읍 수생정원 주변 산책로가 정비됨에 따라 부안읍 지역주민들의 두발라이프가 실현되어 크게 호응 받고 있으며, 신운천 생태하천사업 일환으로 수질정화시설이 최종 완공되어 신운천 처리수질이 1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신운천 산책로 정비와 수목 식재를 완료하여 미세먼지 및 악취문제 해소를 부안읍 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로와 쉼터로 새로이 자리매김 하고 있다.

부안읍 선운리, 신운리 일원 부안 수생정원은 지방정원 외 11개사업/868억원으로 2022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까지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5개사업/283억원(1시군1생태 관광 조성, 산림조경숲 조성, 생태하천 조성, 신운천 상류 수질개선, 도시농업 텃밭조성)이 준공됨에 따라 생태하천과 연계된 수생정원 및 자연생태공간 조성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

미세먼지, 악취문제 등의 저감효과가 기대되며,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주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쾌적한 쉼터 및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생태하천 보안등 점등 및 신운천 산책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부안지방정원 외 5개사업/585억원을 2022년 12월까지 완료 후 2023년 1월 산림청에 부안수생국가정원(41만㎡) 지정을 신청하여 2023년 6월까지 승인 받겠다는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과 부안마실축제제전위원회가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축제 제전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부안으로 떠나는 일상 속 소풍’

부안마실축제 제전위원회 개최... 축제 본격 준비

부안군과 부안마실축제제전위원회(위원장 이석기, 이하 '제전위')는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축제 제전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부안마실축제는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마실축제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안의 대표축제이며 특히 2019년도에는 주행사장이 기존 부안을 아담사거리에서 매창공원 일원으로 옮겨져 '마실' (이웃집에 가볍게 불러간다)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마실여행을 모티브로 한 '부안으로 떠나는 일상 속 소풍'이라는 주제로 제전위원들의 열띤 토의와 논의를 거쳐 부안의 지역문화, 관광자원,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부안군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년보다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인다

는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 5개 마을을 축제장으로 그대로 옮겨온 '마실체험 현장속으로'를 새롭게 선보이고 '마실춤 퍼레이드 경연대회'와 부안마실의 역사와 자원을 소개한 '마실주제 전시마당'은 더욱 풍성하게 마련된다. 또 이전에는 매창문화관 외벽을 활용한 'BUAN 미래로, 세계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고 축제장 전체를 아름다운 경관조명으로 꾸며 밤마실 나온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눈이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석기 제전위원장은 "전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부안마실축제가 2019년도에는 더욱더 높이 부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CCTV통합관제센터, 동사 직전 시민 구해

정읍시 CCTV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는 동사직전의 주취자를 적극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하여 귀가 조치했다. 27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10시경 연지동 르카프 매장 부근 도로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CCTV관제 중 발견하여 112상황실을 통해 안전하게 경찰에 인계했다. 특히, 이번 주취자 발견은 적극적인 CCTV관제를 통해 겨울철 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정읍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품격 있는 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감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 SET

GIF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 SET 3세 | 750ml 1ea/12%

GIF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 SET 5세 | 375ml 5ea/13%

GIF SET 6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684-8960  
www.gangsanwine.com